

# 실천지(實踐智)로서 안재홍의 벽상관(壁上觀): 식민지 지식인의 대외인식 단면

윤대식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글은 식민통치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이자 지사적 투사로 평가되는 안재홍의 국제정세 논변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대외인식 또는 국제정치관을 분석한 것이다. 왜 식민지 지식인의 대외인식을 살펴봐야 하는 것일까? 안재홍의 항일투쟁은 언론을 통해 내부 식민통치구조에 대한 현실적, 도덕적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제정세에 대한 소개와 전달, 진단과 분석을 시도하여 세계질서와 동아시아 질서, 세계사와 한국사의 교차에 의해 한국의 역사적 필연을 밝히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식민지 지식인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정치적 실천지(實踐智)를 제기하는 것이며 벽상관(壁上觀)으로 구체화한다.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벽상관의 태도는 세계 질서에 대한 냉안관(冷眼觀)으로 확대되지만, 그것은 식민지 지식인의 무력함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필연성에 기초한 내외 문제의 일원적 해결기제로 제시된 것이었다.

주제어: 안재홍, 실천지, 벽상관, 냉안관, 일원적 해결기제

## I. 들어가는 말

근대 여명기 조선의 통치주체들과 지식인들은 서구와 근대를 제국주의와의 충격적 조우를 통해 경험하였다.<sup>1)</sup> 물론 이러한 이해는 기존의 역사관과 관련되었지만, 새로운 경험

1) 이 시기 대표적인 동아시아 지식인들, 예를 들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양계초(梁啓超), 유길준(俞吉濬)에게 화두는 문명(文明)과 문명화 곧 근대화였다. 토인비(A. J. Toynbee)가 『역사의 연구』(2012, 60)에서 “역사에 작용하는 세력들은 한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원인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 원인들은 여러 부분의 하나하나에 작용하는 것이므로 전체사회에 끼치는 작용을 포괄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부분적 작용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 포괄성으로부터 역사를 문명 간 도전과 응전으로 접근하였음을 고려할 때, 문명전환의 시기로 규정된 이 시기 지식인들의 문제의식이 이후 근대 한국 지식인의 성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

이 자발적—내재적 발전론—이었던 비자발적—식민지 근대화론—이었던 간에 조선이 더 이상 자신들의 역사범주에 머물지 않고 세계사의 일부분임을 깨닫게 하는 단서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세계사의 일부분으로 편입될 것인지, 또는 세계사의 일부이지만 독자적인 위상과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대 지식인들의 고민과 기대가 교차했을 것이다. 더구나 그 여부에 따라 당시 이 땅의 지식인들 스스로 자신이 처한 역사적 조건, 즉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압박받는 조선의 존망과 최종적으로 식민통치로 전락함에 따라 이 상황에 대해 순응과 저항 둘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강요받았을 것이다.

상기한 근대 한국의 정치주체와 지식인들이 가졌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역사의 이해로 나아갔다고 전제할 경우, 그들은 보편적 세계사로부터 현재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척도를 찾았을 것이고 그 결과 일정 수준 대외인식과 국제정세의 안목을 양성하였을 것이다. 물론 이미 개항을 전후해 대외인식을 가다듬었던 근대 초기의 지식인들로부터 볼 수 있지만, 그 해답모색의 구체적 양상은 크게 문명개화(文明開化)와 보수응변(保守應變)으로 표출되었다.<sup>2)</sup> 그런데 이러한 전통과 근대의 이분법적 평가는 현재 한국의 지식인과 일반대중 간 인식의 괴리가 가장 큰 사항이기도 하며, 동시에 전통과 근대의 조우와 충돌, 갈등의 과정에서 잉태되었던 한국 민족주의에 내포된 강렬한 개성으로서 저항성과 보편성

을 것이다.

- 2) 일제의 국권침탈이라는 도전에 따른 보국(保國)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응전의 사상적, 실천적 양상이 본격화되었던 출발점이라는 특징을 전제로 할 때, 근대 초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편의상 크게 두 가지 맥락, 첫째, 개항·한말을 시간적 배경으로 문명개화, 애국계몽, 위정척사, 개화파, 의회주의, 근대성, 갑신정변, 갑오개혁, 의병투쟁, 독립협회, 대한제국 등 주요 사건 및 정치세력과 운동의 차원에서 사상적, 실천적 양상을 추적하는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둘째, 보다 미시적인 이해의 방법론으로서 개별 행위자들의 내외적 조건과 이에 따른 사상적, 실천적 양상을 설명·비교하는 작업도 동반되어 이 시기 전체의 설명 틀을 구성한다. 특히 개항 이후부터 근대화의 노정에서 주체적인 사상적, 실천적 대응을 보여주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은 특히 1970~80년대 지배적이었는데 근대, 근대화의 키워드를 사용한 통사(通史) 계발이 두드러진 특징을 지닌다. 대표적인 연구들로 최창규(1972), 이광린(1973), 홍이섭(1974), 신용하(1974; 1981), 이현희(1979; 1982), 백낙준(1977), 김용욱(1979), 조동걸(1980; 1982), 강재언(1982), 이만열(1983), 박충석(1982), 윤사순(1984), 이정식(1984), 신복룡(1987) 등은 한국 민족주의를 한국 근대사 설명의 틀로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신일철(1976), 신용하(1977), 이만열(1977; 1985), 최종고(1983), 강광식(1988) 등의 연구 역시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90년대 이후의 연구는 이러한 설명틀을 깨뜨리고 역사의 다면성을 강조하고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천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으로서의 민주성만큼 이중적이다(이황직 2011, 109).

비록 단선적인 구별일지라도 근대 초기 보국(保國)을 위한 대안을 무엇으로부터 찾을 것인지를 고민한 근대 한국의 정치주체 또는 지식인들과 달리, 식민지로 전락한 망국(亡國)의 상태에 놓여 있던 지식인들은 광복(光復)이라는 바뀐 목표로 인해 이전 지식인들과는 다른 관점과 대안을 모색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 역시 큰 틀에서는 보편사로서 세계사 또는 세계의 일원으로서 근대 한국의 자존(自尊)을 독해하였을 것이며, 구체적 방법론으로서 식민통치에 저항할 민족적 고유성을 모색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식민시기 한국 지식인들의 당면과제는 일본의 지배라는 내부문제에 집중되었을텐데, ‘국제정치 또는 세계에 대한 조망이라는 더 포괄적인 전략적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문제제기는 독립을 위한 투쟁사의 일부로 조망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식민통치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이자 지식적 투사로 평가되는 안재홍의 국제정세 논변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대외인식 또는 국제정치관을 분석한 것이다.<sup>3)</sup> 식민통치라는 특정상황으로 인해 스스로 자치(自治)의 훈련을 쌓을 수 없었던 당시의 조선 지식인들은 정치적 운동에 국한하거나 형세의 추이만 관망하는 등 분열된 양상이었다.<sup>4)</sup> 안재홍

3) 현재까지 안재홍에 대한 학문적 연구 성과는 1978년 겨울 천관우가 안재홍의 「연보」(年譜)를 정리하고, 이어 『民世安在鴻選集』의 「해제」(解題)(1981)를 쓰면서 안재홍 연구의 물꼬를 튼 뒤, 1980년대 들어 정운재(1981)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안재홍의 생애와 정치사상·운동의 대강을 밝히는 데서 출발하는 정운재(1981), 유병용(1982)의 연구, 신민족주의론의 본질·성격과 내용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집중되었던 정운재(1990), 정영훈(1992), 유병용(1994)의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이어져 임형진(2004; 2006), 하영선(2011) 등의 연구로 확대되었다. 특히 안재홍 관련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사상과 이념을 다룬 분야인데, 정운재(정운재 1991; 1993; 2002; Chung 1988)는 안재홍의 신민족주의에서 ‘조선정치철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사리주의’를 주목하여 집중 조명하였는데, 이로써 신민족주의론의 핵심과 실체를 상당 부분 해명하였다. 한편 신민족주의에 대한 연구의 심층화는 신민족주의의 형성과정에서 한국의 전통사상과 서구사상 등의 영향을 규명하는 김인식(1998), 이상익(2011)의 연구, 다른 정치사상과 비교·검토하는 단계로 발전한 정운재(1997; 1999), 김인식(2000), 윤대식(2005)의 연구가 있으며, 정영훈(1994; 2004)은 연구의 시야를 다른 중도파의 사상까지 확장하여, 8·15 해방 후 안재홍의 정치사상과 노선을 중도우파의 범주에서 통합성 있게 분석하는 결실을 낳았다. 이외 언론사상 및 활동, 민족주의 역사관 및 조선학 분야, 민세주의 등에 대한 연구가 심화, 확장되었다. 그러나 안재홍의 국제정세관을 주제로 다루거나 그 핵심어로 ‘벽상관’, ‘냉안관’의 용어사용과 개념 정의를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4) “조선인의 정치적 분야”(조선일보 1924/01/21), 『민세안재홍선집 I』(1981, 93; 이하 “제목”(출처),

의 사상적·실천적 대응은 식민통치에 대한 거부와 투쟁(排日)을 넘어 식민통치를 구성한 내외적 조건의 구조적 관계를 간파함으로써 식민통치의 현실적·도덕적 부당성(克日)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안재홍은 언론이라는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역사적 진단과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제국주의적 침탈의 구조적 문제까지 다루었다.

반면 식민통치라는 현재상황,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실존양상, 그리고 언론을 통한 논변의 투쟁수단이라는 조건의 조합은 국제정세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처방을 원천적으로 곤란하게 한다. 이로 인해 안재홍은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동아시아 질서의 추이, 그리고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이라는 대상의 확대를 언론을 통한 소개와 전달 그리고 진단과 분석으로 전개한다. 결국 그것은 벽상관(壁上觀), 즉 ‘직접 관여하지 않고 앉아서 성공과 실패를 구경만 한다’는 사전적 풀이대로, 식민지 지식인의 대외인식과 태도로 귀결된다. 그러나 안재홍의 벽상관은 국외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의 방관이라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국제정치의 현실을 좌시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역량부재를 한탄한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지식인으로서 대중들에게 현상을 설명하고 계도해야 한다는 그 자신 책무의 이행일 수도 있다.

## II. 정치적 실천지(實踐智)로서 벽상관

안재홍은 한일병합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직면해서 “그 때 꼭 스무살로 혈기가 한참 팔팔한 때이었다 [...] 애태우고 숙덕대고 하다가 결국은 가서 자리잡은 데가 동경<sup>5)</sup>”으로 일본유학을 결정하고 1911년 와세다(早稻田) 대학 정경학부에 입학하였다. 일본유학 중인 1913년 안재홍은 중국의 제2혁명 시기에 “동경에서 상해로 건너가서 청도, 제남, 천진, 북경, 산해관, 봉천, 안동현 등지로 약 70여일 여행<sup>6)</sup>하면서 동제사(同濟社)에 가입한다.<sup>7)</sup> 이 시기는 안재홍 스스로 “낭만적인 공상을 씻어버리고 고토(古土)에 집착하겠다는 결심을

『선집 I』 또는 『선집 II』(연도, 페이지 수)로 기재).

5) “학생시대의 회고” 『신동아』 6호(1935, 152).

6) “나와 교유록” 『삼천리』 9호(1935, 88-89).

7) 천관우, “해제” 『선집 I』(1981, 7).

군계 하였던”<sup>8)</sup> 계기였다고 밝히듯이, 정치적 각성을 넘어 항일투쟁이라는 구체적 목표가 설정되었던 때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안재홍의 중국여행이 개인적인 호승심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일련의 세계사적 흐름을 이해한 결과인지에 대한 분석이다. 동제사는 중국의 신해혁명에 참여하였던 신규식을 중심으로 결성된 국권회복(復國)운동의 결사체였다.<sup>9)</sup> 그것은 중국 내 조선의 지식인들뿐 아니라 해외에 유학중이거나 활동 중인 지식인과 독립지사들을 포괄하는 조직이었으며, 중국 혁명세력의 공화주의에 일정부분 영향 받았던 특징을 지닌다(배경한 2003, 232-234). 그렇게 보자면 동제사의 결성은 중국의 공화제 혁명에 대한 공감과 함께 목표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단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중국정세에 대한 안재홍의 관심과 이후 지속적인 논변의 양상은 이 시기 중국 공화제혁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25년 손문의 사망에 대해 “동방 오천년 전제(專制)적이었던 고국으로 하여금 문득 만인공화의 신정체를 수립케 하니, 오호라! 손문씨는 그 만고의 위인이 아니냐”라고 평가하면서 “괴옹 원세개씨로 더불어 일시의 타협으로 완성을 후일에 기할밖에 없었다”는 안재홍의 회고<sup>10)</sup>는 그가 훗날 건국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기제로 신민주주의를 제기하면서 “삼균정책의 토대 위에 그 만민공화, 대중공생의 신사회국가가 건설되는 것”<sup>11)</sup>이라고 사유한 단서를 보여준다. 그렇게 보자면 안재홍은 신채호, 박은식 등 선배세대와 조소앙, 홍명희, 문일평 등 일본유학 경력의 신지식층과 양명학의 적용을 이은 정인보 등과의 교류를 통해 정치적 문제의식을 명료화하는 기회를 얻었지만,<sup>12)</sup> 그 내적 조건의 치밀성과 달리 외적 조건의 취약성으로 인해 벽상관(壁上觀)이라는 자조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항우(項羽)의 초나라 군대가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면서 패권을 장악하는 과정에 여타 제후군이 “모두 자신의 진영에서 관전만 하고 있을 뿐”<sup>13)</sup> 그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고 결

8) “학생시대의 회고” 『신동아』 6호(1935, 154).

9)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피안에 도착하자’(同舟共濟)라는 의미에서 형식상 재중동포의 상호협력기구로 만들어졌지만, 실질상 국권회복운동을 목표로 한 결사체였다(김희곤 1981, 175-176).

10) “孫中山山생을 弔함”(조선일보 1925/01/28), 『선집 I』(1981, 98).

11) “역사와 과학과의 신민주주의”(한성일보 1947/12), 『선집 II』(1983, 235).

12) 비타협적 민주주의 계열은 항일독립운동론 계열의 선배인사들과 교류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상적 친화성을 갖는다(김명규 2002, 175).

13) 『史記』「項羽本紀」, “當是時, 楚兵冠諸侯. 諸侯軍救鉅鹿下者十餘壁, 莫敢縱兵. 及楚擊秦, 諸將皆

과에 승복하였다는 의미를 지닌 벽상관의 어의는 안재홍에게 방관과 무력함이라는 의미로 제시된 것이 아닐 것이다.

1917년에 이르러 러시아 혁명의 발발과 이어 1918년 파리강화회의는 세계사의 맥락에서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작용한다. 두 사건은 1919년 조선의 3·1운동과 일정한 상관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러시아혁명과 파리강화회의 모두 민족자결원칙을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3·1운동 이후 “아무것도 못하고 상심만 하던 내가 나서면서 징역살이를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가엾어서 나는 언론진을 베풀고 운동단락후의 민중이나 계몽하겠다”(이정식 1976, 300)는 안재홍의 토로처럼, 그 자신이 언론을 통한 항일투쟁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두 사건은 그의 대외 인식과 국제관을 이해하는 단서일 것이다.<sup>14)</sup> 물론 이 시기 식민지 지식인들은 1차 세계대전의 파괴적 결과에 따라 염세적 전망과 서구 문명에 대한 회의와 반동의 경향이 나타났던 서구의 지적 분위기를 인지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민족 자결주의와 국제연맹의 출범에 힘입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세계 개조’ 기운의 충만을 세계 대세로 이해하고 있었다(채오병 2012, 181).

만약 3·1 운동을 기점으로 안재홍의 항일투쟁이 본격화되었다고 전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3·1 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 민족운동세력이 독립달성을 위해 열강을 상대로 한 외교활동에 기대하였지만 관심을 끄는 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수용한다면, 동아시아 질서를 포함한 국제정세에 대한 안재홍의 논변은 벽상관의 태도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919년 3·1 운동부터 파리강화회의 종결 시기까지 국내외 독립운동세력은 만세시위운동-무력양성운동-외교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문제가 파리강화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종결되었으며, 국제연맹의 결성이 연기됨에 따라 외교활동에 의존한 독립의 기대는 좌절되었기 때문이다(반병률 2006, 109-118).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1차 육사를 치룬 안재홍의 경우, 좌절된 독립의 기대로부터 그 해결책으로 “우리가 그 필연한 일로(一路)를 헤쳐 열어(湯開) 나가기로 견해(見識)가 합치될 때 우리는 먼저 주

從壁上觀。楚戰士無不一以當十，楚兵呼聲動天，諸侯軍無不人人懍恐。”

- 14) 안재홍은 16세까지 향리인 평택에서 전통학문을 습득하고 17세 때부터 황성기독청년회 중학부에서 수학하였다. 20세가 되던 해인 1910년 한일병합이 발생하자 이상재의 권고에 따라 1911년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로 유학하고 1914년 졸업과 함께 귀국하였다. 1915년부터 1917년까지 중앙학교의 학감으로 재직하였고 1919년 3·1 운동 이후 상해임정의 연통부 구실을 수행 중 대구에서 3년형을 치르고 난 뒤인 1924년 최남선의 시대일보 논설반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언론활동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자면 언론을 통한 안재홍의 논변은 1924년부터 전개된 것으로 파악되며, 그의 대외인식과 국제관의 공개적 내용도 이 시기 이후의 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변(四圍)의 형세를 정관하고 다음에는 심각한 자기반성을 하여보자”<sup>15)</sup>는 전략적 신중함(prudence)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결국 안재홍의 벽상관은 정치적 실천지(實踐智)의 의미를 내포한 셈이다.

특히 간과해서 안 될 사항은 안재홍의 벽상관이 국제정치로부터 국내정치 그리고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되는 정치적 실천지라는 점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불확실한 요인을 내포하는 전체상을 전제로 상이한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가능한 정치적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정치적 실천지는 현실이 지닌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지식이 결합된 근거에서의 선택은 과거를 유념하고 현재를 밝히면서 미래를 조성하는 계산이어야 한다(노재봉 1984, 89). 그렇기 때문에 벽상관이 내포한 신중함이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이기적인 인간본성에 기초한 비도덕적 사회의 이기성을 상호인정하고 타자가 타자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한 상태에서 나의 이익을 조정하는 신중하고 자기규제적인 실천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면(전재성 2005, 25), 국내정치의 맥락에서 벽상관은 안재홍 개인의 지사적 투쟁방식과 맞물려 식민통치의 탈피와 독립이라는 목표를 준비하고 보호하려는 현재의 의지를 표출하는 방식이기도 하다.<sup>16)</sup> 안재홍은 그 해답을 역사에 대한 이해와 정립에서 찾는다.

### III. 역사를 위한 변명

1924년 안재홍은 최남선의 『시대일보』 논설반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언론활동을 전개한다. 그것은 1919년 3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齊藤實)에 의해 시작한 문화정치(文化政治)로 인해 192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 등 3개 민영지가 출현하였던 상황에 기인하는 역설적인 결과이기도 하다.<sup>17)</sup>

15) “그러면 조선인아 제군은 이 기백이 있느냐?”(시대일보 1924/05/02~03), 『선집 I』(1981, 37).

16) ‘신중’은 그리스 철학과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바를 행동에 옮길 줄 아는 인간성향 또는 절제·용기·정의의 미덕을 인도하는 덕목으로 규정되었다. 근대에서는 칸트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숙고 하는 것’이라는 타산적인 것이기에 도덕과 상반되며 미덕이 아니라고 규정되었다. 앙드레 콩트-스푹빌은 신중의 용례가 방법의 선택에 관여하는 덕목이자 미래를 고려하는 미덕으로 나의 미래뿐 아니라 남의 미래까지 포함하여 준비하고 보호하는 현재의 의지로 제시되었다고 지적한다(하정혜 2004, 189-191).

17) 김성수가 창간한 『동아일보』와 조일동화주의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가 발행주체인 『조선일보』,

안재홍은 이 시기를 “평정한 현하의 조선에는 공포정치가 영속적으로 집행”되는 위기로 판단하고 식민당국의 정책을 ‘살기(殺氣)에 싸인 문화정치’로 규정하였다.<sup>18)</sup> 왜냐하면 “헌병정치 또는 무단정치에 대하여 문화정치라고 하는 것은 즉 입법적인 통치를 이룸이다 [...] 그것은 곧 무력의 단일한 표현이던 테라우치(寺內)씨의 헌병정치에 대하여 그의 복식 표현인 엄형준법의 가혹한 통치로서의 맹목적인 강압책을 영구히 지속하여야 할 것을 주장 또 고취하는 바”<sup>19)</sup>이기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안재홍은 ‘무력의 강압으로써 이민족의 통치에 성공하기는 이미 불가능한 것’을 세계사의 선례에서 찾고 해방과 독립이라는 과제가 역사의 필연성에 기초한 당위적인 것임을 지적한다. 안재홍의 『시대일보』 첫 사설로서 “금일의 조선인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아무 승리의 투쟁전략(策戰)이 성립치 않는 이상 전세계에 움직이는 현상타파, 사회개조의 신기운을 순응하여 그 무책인 대책으로써 자유해방으로의 일로를 헤쳐 나가려 함은 가장 필연의 귀착”<sup>20)</sup>이라는 정언은 치밀해진 식민정책으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획득하기 위한 실천이야말로 역사의 필연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임을 시사한다.

왜 안재홍은 세계사의 이해를 자국의 역사이해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일까? 한 국가의 역사적 위상이 세계의 보편적 질서에 속한 일부이기 때문일까? 만약 이러한 역사인식이라면, 제국주의적 침탈이 가중되었던 상황에서 식민지배로의 전략은 세계사의 흐름에 순응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대로 세계사의 흐름이 민족자결과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식민지배로부터 탈피와 해방 역시 세계사의 흐름에 순응하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정말 안재홍의 역사인식은 그 점을 강조하려는 것일까?

우선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의 대외인식을 결정했던 선행조건으로서 제국 질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제국질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두 형태 사이를 오가는데, 양자 사이에 일종의 사이클이 존재하며 제국의 사이클 속에서 그 이념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부침이 식민지 조선의 정치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채오병 2012, 174-175). 특히 세계 대세를 통해 본 보편과 특수 관계에 주목하자면, 보편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제국의 가치인 반면 제국질서의 중심은 서구이지 일본이 아

---

신일본주의를 표방한 국민협회의 민원식이 발행인인 『시사신문』의 구도는 실질적으로 언론 통제를 위한 총독부의 계획이 반영되었던 결과였다(김민환 1996, 211-212).

18) “공포정치”(조선일보 1924/10/10), 『선집 I』(1981, 72).

19) “그릇된 견해-박열문제 기타에 관하여”(조선일보 1926/09/27~30), 『선집 I』(1981, 169-171).

20) “그러면 조선인아 제국은 이 기백이 있느냐?”(시대일보 1924/05/02~03), 『선집 I』(1981, 36).



니었기에, 조선의 우파, 특히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이 식민통치 비판을 위해 쉽게 의존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자원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였다.<sup>21)</sup> 따라서 민족 자결주의와 국제연맹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컸던 것이며, 동시에 대공황과 전제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제정세의 불투명성과 이에 따른 실망은 민족생존과 단결의 전략으로 자치론의 제시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식민지 우파 지식인과 비교했을 때, 안재홍은 스스로 신간회 출범에 대한 글에서 밝히듯이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를 ‘좌익’으로, 타협적인 친일세력을 ‘우경’세력으로 구분하면서 스스로를 비타협적 민족주의 좌파로 규정하였다.<sup>22)</sup>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보편성을 강조한 당대 식민지 지식인들이 수용한 역사인식과 역사의 일도성(一度性)을 우선적으로 거론하는 안재홍의 역사인식은 분기한다. “역사는 노출되는 면이 그 본질적으로 복잡다양한데서 다양성이란 자 있고, 또 반드시 한번 만에 국한되는 특수성 있음에서 그것을 일도성이라고 하는 것”(안재홍 1949, 37)이라는 안재홍의 지적은 법칙으로서 역사의 보편성과 함께 개별 국가만이 경험하는 역사의 고유성을 부각시킨다. 이로부터 안재홍은 “각 국민의 역사는 각 시기에 따라 일정한 공통성 및 유사성은 있을 수 없나니 각 국민의 조제하고 과정하는 역사가 대단한 복잡성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를 다양성이라고 일컫고 그러나 전에도 후에도 전연 동일한 사태 있을 수 없고 꼭 한 차례만 있다는 점에서 일도성을 일컫나니 다양성과 일도성은 역사진행 도중 항상 쌍존병행(雙存並行)하는 것”<sup>23)</sup>으로 역사의 일도성을 정의한다. 그것은 세계사의 이해로부터 자국의 현실이 역사의 당위적 방향을 향해 어느 단계에 놓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재홍의 현실분석은 세계사와 자국 역사에 대한 교차적인 인식에 기초한다. 안재홍은 “20세기의 미해결문제도 아세아주가 가장 그 대부(大部)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파리 강화회의나 그의 유일의 산물인 국제연맹에 대하여 얼마나 믿고 기뻐하는 낙천가가 있었는지 오인은 알 바 아니거니와 대전란 이후의 세계가 여전히 구세력의 타성과 구제도의 결합 위에 그 불합리한 추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이 현상타파를 열망하는 예속적 종족이나 또는 어떠한 광명을 추구하는 신흥계급의 비상히 분노불평할 바”라고 지적한다.<sup>24)</sup> 그것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동아시아

21) 당시 민족주의의 우파를 대표하는 『동아일보』는 외국의 사정을 주로 전하는 사실을 1923년 108건과 1931년 95건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채오병 2012, 174-175).

22) “신간회의 창립준비”(조선일보 1927/01/10), 『선집 I』(1981, 204).

23) “미소와 한국의 장래”(『개벽』 1924/11), 『선집 II』(1983, 386).

24) “우드 齊藤 멜란”(시대일보 1924/05/31), 『선집 I』(1981, 49-50).

아 질서의 재편이 민족자결주의와 같은 이상론과 달리 제국주의적 예종의 길로 진행되었다는 현실인식을 반영한다. 이 점이 안재홍이 왜 역사를 현실문제 해결의 기제로 채택하였는지를 시사한다. 즉 역사란 현상타파를 위한 투쟁을 추동력으로 삼는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재홍의 역사관은 “인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다. 첫째는 자연에 향한 정복의 투쟁이요, 둘째는 역사발전의 각 단계에 따라 씨족 혹은 부족 간의 생존투쟁으로부터 종족 혹은 국가 민족 간의 투쟁의 역사인 것이요, 셋째는 사회역사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인 것”(안재홍 1949, 87)으로 정립되며, 당시의 현실을 “항쟁시대, 살육시대, 그리고 저주와 복수의 시대, 이는 곧 (민족혁명 국민혁명 및 계급적 혁명인 사회혁명을 아울러) 혁명시대”<sup>25)</sup>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만약 세계질서의 재편과 안정이 아시아의 재편과 안정에 맞물려 있는 조건이라는 안재홍의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평면적으로 본 현하의 국제적 제문제가 동방의 제국을 무대로서 회전되는 바 많다”<sup>26)</sup>는 안재홍의 분석 역시 유효할 것이다. 왜냐하면 “근세 동방 제국민의 국민적 또는 민족적 각성이 항상 세계적으로 대소의 파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이 침략주의를 그의 입국의 기능으로 삼는 동아시아의 제열강에 대하여 부단한 우려와 위협으로써 하는 것은 근대의 역사적 특색”<sup>27)</sup>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재홍의 현실과제, 즉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역사적 접근은 세계사의 분석으로부터 조선역사의 필연적 단계와 진행방향에 대한 분석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것은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는 혁명적 추세라는 시대적 흐름을 관조한 결과 찾아지는 “국민적 민족적으로 불행한 예측상태에 있는 동방 제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현저한 시대적 특징”<sup>28)</sup>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안재홍의 국제정치 인식의 지표가 중국의 내외적 상황 변화와 추이에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중국문제는 모든 국제문제 중에 가장 우리에게 긴절한 관계가 있는 바”<sup>29)</sup>라는 안재홍의 토로처럼, 국제정세에 대한 관심의 동기가 조선의 독립과 해방이라는 과제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세계질서의 과제해결이 동아시아 질서의 과제해결과 상관성을 지니기에 동아시아 질서의 기축인 중국-조선-일본의 내외적 상황변화와 추이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이었다.

25) “혁명시대”(조선일보 1925/06/28), 『선집 I』(1981, 118).

26) “동방 제국민의 각성”(조선일보 1925/06/28), 『선집 I』(1981, 119).

27) “동방 제국민의 각성”(조선일보 1925/06/28), 『선집 I』(1981, 119).

28) “동방 제국민의 각성”(조선일보 1925/06/28), 『선집 I』(1981, 120).

29) “危難中國의 壁上大觀” 『신조선』 7호(1934, 11).

안재홍은 중국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중국문제를 좋아하느니보다는 그것이 극동 대세의 변전되는 도정에 있어서 관계되는 바 많은 까닭”이라고 환기하고, “근일 극동형세를 좌우하려 하는 것은 영·미(英米) 혹은 일·미(日米) 등의 문제보다도 또다시 이십년 전의 옛날에 뒷걸음쳐서 일·리(日露) 양국의 심상치 아니한 관계를 주축으로 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목한다.<sup>30)</sup> 즉 “조선을 사다리로서 만몽(滿蒙)에 세력을 집중하고 그리하여 경진 일대에까지도 그 방어의 전초선을 늘이고 있는 제국 일본은 이제 혁명파의 대두와 및 장작림의 전도불안에 관하여 적지 않게 고심과 및 숙려를 하고 있는 중 [...] 일본의 고민은 중국인의 국민적 각성에 인한 만몽이권 회수의 운동과 및 인심동요의 틈을 타서 한 걸음씩 그 세력을 부식하게 되는 노농 러시아(露國)의 남하운동, 그것”<sup>31)</sup>이라는 안재홍의 분석은 만주를 중심으로 하는 열강의 침투와 그 기반으로 기능하는 조선의 현재 위상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안재홍의 분석은 1925년 이후 중국의 권력투쟁 상황전개에 대한 천착으로 연결된다. 1925년 3월 손문 사망 이후 장개석의 “광동국민정부의 승인문제는 아직도 구체화하지는 아니하였다. 혁명파인 북벌군의 전국의 형세도 근일 자못 심대한 관망(觀)조차 있다 [...] 장작림을 중심으로 한 봉천파의 성운은 필경 중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문제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된다”<sup>32)</sup>는 안재홍의 예단은 이후 전개되는 중국혁명과정에서 국공분열과 이어지는 제남(濟南)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벽상관을 정립한다.

당시 중국의 내부정세는 무한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혁명에 대한 정책과 노선에 따른 파벌형성이 이루어지고, 왕정위(汪精衛)를 중심으로 한 좌파, 장개석을 중심으로 한 우파, 그리고 당생지와 같은 군벌 간 삼정체제가 수립되었다.<sup>33)</sup> 이후 국민당 삼중전회를 계기로 무한정부는 국민당 좌파와 공산당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였고 당의 권력기반을 민중으로 구하는 동시에 국공합작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이재령 1992, 116). 그것은 제국주의와 민족 부르조아지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파와 장개석의 결합을 가져왔고 4월 12일 장개석의 쿠데타 실패 후, 장개석과 우파 중심의 남경 국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국민당

30) “중국형세와 일본의 지위”(조선일보 1926/12/09), 『선집 I』(1981, 184).

31) “중국형세와 일본의 지위”(조선일보 1926/12/09), 『선집 I』(1981, 185).

32) “중국형세와 일본의 지위”(조선일보 1926/12/09), 『선집 I』(1981, 185).

33) 1927년 1월 장개석의 남창점령과 남경진출, 3월 국민당 삼중전회(三中全會)와 4월의 남경 장개석 정권의 등장, 7월 분공(分共)으로 전개되는 무한정부의 통치시기에 이를 뒷받침했던 정치적·군사적 중추는 당생지(唐生智)였다(나현수 2006, 25-26).

은 완전히 분열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공산화 여부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관심은 고조되었고, 안재홍 역시 이에 참여한다. 안재홍은 “중국이 공산화하겠느냐? 이 문제를 말함에는 목하 중국혁명운동에 있어서 중대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소위 좌익파와 우익파의 내홍”이라는 전제로부터 무한파 또는 남창파의 승리를 예측할 경우 “사상적 입각지에서 본다면 무한파의 승리를 말함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상 내지 정치상으로 관찰할 때에는 아무래도 남창파를 당치 못할 것이 필연적인 형세”라고 분석한다.<sup>34)</sup> 사실상 당시 무한정부는 당생지의 북벌군이 풍옥상의 국민군과 연결되어 군사적 승리에 대한 기대를 높였기에 공산당을 배제한 연석회의를 통해 국민군의 무한정부 편입을 위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반공이라는 전제 하에 도리어 풍옥상과 장개석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남경과의 통합이 실패를 가져왔으며, 왕정위는 7월 12일 분공을 선언하는 것으로 남경정부에 편입되었다(이재령 1992, 131-137). 따라서 그 전개과정의 사실을 반추하자면, “좌파에서 당생지와 같이 이념을 알 수 없는 인물을 그의 무력상의 옹호자로 장개석과 항쟁한다는 것은 승산이 없는 일이요, 만일 무한이 다시 북방세력에 위협되는 날이 있다하면 그는 더욱 장씨파의 세력을 증대케 하는 기회가 될 것”<sup>35)</sup>이라는 안재홍의 예단은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중국혁명과정을 분석한 결과임을 반영한다. 이러한 안재홍의 태도는 중국혁명에 대한 관조적 입장을 보여주며, 그 관조적 입장의 표현이 벽상관이다.

안재홍의 벽상관은 중국혁명과정과 남경정부로의 권력이동에 대한 고찰로부터 남경정부의 북벌과정에서 발생한 중일 간 제남(濟南)사변에서 명백해진다.<sup>36)</sup> 안재홍은 제남 사건을 소개하면서 “제남사변이란 자는 그간 보도가 매우 구구하여 그 진상을 포착하기 어려울 썸이었고 일본측의 주장과 중국 남군측의 주장은 왕왕 적지 않은 모순이 있어서 더욱이 사건의 진상을 알기 힘들게 한다”고 지적하고, 그 추이를 “장개석으로서도, 급진파의 약기운동과 일본과의 갈등으로 진퇴양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어찌하지(奈何) 못할 것이요, 일본으로서도, 비록 무력으로써 일시에 압복시킬 수는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들의

34) “社會民主主義의 程度에서 勞資協調의 政策下에 支配될 것” 『신민』 24호(1927, 43).

35) “社會民主主義의 程度에서 勞資協調의 政策下에 支配될 것” 『신민』 24호(1927, 44).

36) 제남사건은 1927년 4·12 쿠데타 이후 장개석이 정치적·군사적 주도권 장악에 성공하고 하남과 산둥지역으로 북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북만주를 장악한 일본군의 산둥출병으로 인해 발생한 중일 간 충돌이다. 물론 일본군의 출병은 만몽 지역의 일본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벌을 간섭할 필요에서 나온 것이었다(배경한 1994, 262).

민중적 반항의 기세를 진복할 수 없는 까닭”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으로 추단한다.<sup>37)</sup>

사실상 제남사건은 동북만주를 포함하는 중국통일과정에서 만몽지역에 대한 특수이익을 가졌던 일본의 간섭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장개석의 우선적인 목표는 대내적 통일이었기에 일본의 간섭에 대한 불저항주의로 전면전을 회피하였고, 1928년 6월 8일 국민혁명군은 북경을 점령하고 7월 6일 공식적으로 북벌완성을 선언함으로써 장성 이남의 통일을 완성한다.<sup>38)</sup> 1928년 북벌의 형식적 완료 이후, 1929년에 접어들면 국민당 내 각 정치파벌과 세력가들이 반중앙의 경향을 보이면서 반장개석 활동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김영신 2004, 655). 이에 따라 안재홍의 관심 역시 중국 내부정치에 대한 전망으로 옮겨간다.

안재홍은 “중국의 일을 보라 [...] 장개석이 만일 왕조명으로 더불어 타협하고 서로 국면을 수습하는 바 있다 하면 일시적인 소강(小康)은 우선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남 호북도 또 광둥도 아니요 남경에 아주 가까운(迫近) 땅에서 다시 전화(戰火)가 일어나 반장개석파(反蔣)의 외침(聲浪)은 새로이 컸다”고 전제하고, 그 결과 “각파 군벌과 좌우 각 날개가 그 사이에 교차한 바 있어 끝이 없는 병란을 일으키며, 만골이 부질없이 녹아지고 만민이 부질없이 부대끼고 도망하여 숨는(遁竄) 자, 울부짖는(呼泣) 자, 신음하는 자가 거둬 생겨나고 뒤따라 일어나는 것이 평화 그것과는 전연히 배치되는 자”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현황이 단지 중국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sup>39)</sup> 중국정세의 추이에 대한 안재홍의 관심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위한 세계대전 전망으로 확대된다.

37) “제남사건의 벽상관”(조선일보 1928/05/09), 『선집 I』(1981, 280-281).

38) 7월 7일에 북경에서는 북벌승리를 경축하고 북벌군을 환영하는 관민 합동 시민대회가 개최되었고 혁명세력을 새로운 통치권력으로 환영하면서 단기서, 장사흠, 양계초의 체포와 군벌과 부패관료의 숙정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북벌이 반제 반봉건을 표방한 이상 당연한 것이었으나, 사실상 국가건설의 주도권을 둘러싼 제세력 간 경쟁의 표현이자 특정세력이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정당한 권력행사를 가장함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려는 형식이기도 했다(오병수 2002, 87).

39) “평화-세계는 언제 평화할까”(조선일보 1929/12/07), 『선집 I』(1981, 330-331).

#### IV. 제국주의의 종말: 문화적 회통을 꿈꾸며

안재홍의 중국관이 벽상관에 기초한 것이라면, 국제정세관은 그 연장선상에서 제기되며 냉안관(冷眼觀)으로 귀결된다. 냉안관의 형성 이전 안재홍의 국제정세관은 다면적인 동시에 조선의 상황에 대한 유비(類比)로 채택되었다. 예를 들어 대만독립운동에 대한 시평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일본의 자본주의적 경략에 가장 적합한 바 있고, 남으로 일엽편주로 건널 정도로 좁은 바다(一葦帶水)를 건너 필리핀(比律賓) 군도로부터 동인도 여러 섬에 연락되는 바 [...] 해국(海國)인 일본의 해군책동의 근거지로서”의 효율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만독립운동 자체가 “약소민족 해방운동의 필연한 궤도”임을 대비한다.<sup>40)</sup> 즉 대만을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공통분모로부터 동일한 연원을 지닌 사태의 추이과정으로 추적하였던 것이다. 한편 일본과 대조되는 영국의 식민지배라는 측면에서 안재홍의 유비 대상은 인도와 아일랜드였다. 안재홍은 “민족적 피예속의 관계로 보든지, 또는 정치적 형세의 발전과정으로 보든지 아일랜드(愛蘭)와 조선(朝鮮)은 항상 동일하게 생각되는 줄 믿는다 [...] 조선인으로서 마음속에 항상 조선과 아일랜드를 대비하는 자”라고 전제한다.<sup>41)</sup>

물론 이 때까지의 안재홍의 국제정세관은 보편사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동시적이며 상이한 정치공간을 수평적으로 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정세의 중심축으로서 중국정세에 대한 벽상관은 개별 국가의 특수사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동일 정치공간을 시계열에 기초한 수직적 조망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라는 정치공간의 양상은 세계질서라는 선행조건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안재홍의 국제정세관은 중국정세에 관한 벽상관을 보다 큰 틀로 유추한 것이며, 냉안관으로 귀결된다.

안재홍은 1934년을 기점으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위한 세계대전을 전망하고, 유럽열강을 보조적 역할자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안재홍은 이 시기 유럽열강 간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우선 안재홍은 이 시기의 역사적 조건, 즉 경제공황을 국제관계의 성립선행조건으로 부각시킨다. “자본주의 그것의 내재적 필연의 현상인 공황”<sup>42)</sup>이라는 인식에서도 나타나듯이, 안재홍은 “영국의 금본위제 정지는 세계 경제계에 중대

40) “대만독립운동”(조선일보 1926/07/31), 『선집 I』(1981, 145-146).

41) “愛蘭문제와 朝鮮문제”(조선일보 1926/11/04), 『선집 I』(1981, 178).

42) “國際時評” 『신조선』 8호(1935, 12).



한 영향을 주어 세계는 경제적 전환기를 돌아들고 있다”<sup>43)</sup>고 지적하면서 국제정세의 불안정 동기가말로 정치적 외연보다 경제적 내포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이로부터 안재홍은 “미국은 그 황금보유량이 전 세계에서 삼할구푼이란 거량을 가지고 천산의 풍부함이 넉넉히 자급적 국민경제로써 존립할 듯 싶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필경 이 경제적 난관에 만난 것 [...] 미국의 정부는 제이차로 국제경제회의라도 열어 통화안정과 관세장벽의 철폐로써 국제무역관계의 마땅한 모습(當態)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공황의 위기를 해소케 하겠다고 한다. 그 성공여하는 지레 알바 아니나 세계의 국민경제가 드디어 다시 그 수정을 요하는 파국에 닥쳐온 것만은 틀림없다”<sup>44)</sup>고 분석한다. 동시에 안재홍은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佛國)는 미국보담 조금 전 세계 금보유량의 이할오푼을 소유한터이나 군사비의 팽창 등 종종 원인인 백억 프랑의 적자가 나는 터이오, 투기사들의 매국적 행동이 프랑가격을 동요케 하는 것이라고 하여 금괴를 멕시코에 팔은 레이노시와 달라를 산 슈나르지의 노토르 주필을 체포하는 등 폭탄적인 카이요씨의 프랑 옹호에의 때문의 비상수단도 관철할 사이도 없이 그처럼 전도(倒顛)하고 만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구주 금 불력의 왕자로서 도도한 금 유출에 굴하지 않고 금본위의 고성을 사수하든 불란서에도 이 세계적 거대한 파도(巨浪)는 다시 덩벼들 것”으로 예단한다.<sup>45)</sup>

한편 독일과 이탈리아의 정치적·군사적 행동에 대한 안재홍의 관찰은 향후 국제정세에 대한 예측의 근거로 채택된다. 안재홍은 독일의 재무장과 영독 간 군축협상의 추이에 대해 “3월 16일 히틀러 총통의 재군비 선언 이래 [...] 6월 초순 런던에서 영독 회상이 있어 최초에는 총통수주의로써 독의 주장이 강경하였으나 결국 영의 주장대로 함중별 군축방식채용과 잠수함 폐지도 찬성하는 태도로써 영국 해군에 대한 삼할오푼의 만족할 것을 표명해야 그 칠개년 계획인 해군건설로서는 영제국의 비위를 맞춰 주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독일의 국내정세는 실업자의 재증가 수량을 따라 자못 지적할 바 있으나 오히려 격심치는 않은 사정”이라고 대조한다.<sup>46)</sup> 왜 미국과 프랑스의 자본주의 붕괴에 대해서는 우려하였던 태도와 달리 독일의 국내사정에 대해서는 낙관하였던 것일까? 사실 외부의 관망은 독일의 재무장이라는 가시적인 현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한계

43) “민족전망”(조선일보 1931/10/02), 『선집 I』(1981, 440).

44) “國際時評” 『신조선』 8호(1935, 12).

45) “國際時評” 『신조선』 8호(1935, 13-14).

46) “國際時評” 『신조선』 8호(1935, 14).

를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sup>47)</sup> 더구나 안재홍에게 독일 재무장은 “소련을 서쪽에서 견제하여 극동방면에서 혹은 풍운의 위기를 빚어낼 수도 있고 더구나 구주의 다사함이 극동을 돌아볼 수 없을 때에 극동에서는 국제정국이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sup>48)</sup>으로 판단되었기에 이 점을 상기시켰던 것이다.

여기에서 안재홍이 주목하는 양상은 유럽열강의 국가 간 관계가 세력균형에 따라 변동되었다는 점이다. 즉 “역사는 변전(變轉)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안재홍은 “1906년 10월 13일 영·불·이(英佛伊) 삼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에티오피아에 대한 삼국의 세력범위를 저희끼리 설정하고 상호의 타협까지 하였든 유래와 1915년 이태리가 삼국동맹을 배신하고 연합국 측에 들러붙는 대가로 아프리카에서 이태리의 식민지 확장에 유리한 지지를 할 것을 약속하였든 런던 비밀조약과 기타 영·이(英伊)간의 이에 관한 공문교환 등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목하에서는 영·이(英伊)의 갈등은 첨예화하여져서 작금에는 소위 일촉즉발의 군사상의 위기가 마치 목전(目睫)에 다가든 것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비평한다.<sup>49)</sup>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이탈리아의 제국주의 경쟁체제로의 편입을 역량부족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안재홍은 영국과 이탈리아의 군사적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 “1860년대에 겨우 독립통일이 성취된 이래 1866년 독·오(獨奧)전쟁에 패하였고 1896년 야도와에서 패하였고 1917년경에 피아베 평원과 이손소 하안에서 동맹군에게 패하면서 늘 우방의 덕분으로 좋은 운(盛運)만은 유지하여 왔으면서 이제 최강대적인 영제국과 겨루어 과연 크게 한번 싸워 볼 것(大戰一番)을 결심할 것인가?”<sup>50)</sup>라고 반문한다. 즉 안재홍은 개전의 비현실성에 대한 이유로 “영·불·이(英佛伊)이 모두 민주주의의 국가로서 무솔리니의 독재정치와 및 그의 자위방편으로서의 침략의 전쟁을 중심으로 미워함에 의하여 이태리가 더욱 위난의 국면에 빠져 들어감이 바야흐로 그렇게 되었으니(方爲) 일리 있는 바”라고 거론하면서, “만약 전쟁국면(戰局)의 확대가 있다하면 그는 영국이 세계적 대제국의 재강화

47) 나치정부의 기본인식은 생활공간의 확대를 통해서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직접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라인하르트 계획을 세우고 최적의 공공사업 중 하나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막대한 물적, 인적 자원의 동원뿐 아니라 선전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였다(권형진 2002, 324-325).

48) “國際時評” 『신조선』 8호(1935, 15).

49) “歐洲戰雲의 冷眼觀” 『신조선』 12호(1935, 6).

50) “歐洲戰雲의 冷眼觀” 『신조선』 12호(1935, 8).

와 및 그 권위의 안전의 때문의 이태리의 타도를 독일에 대한 그것처럼 하려함에 있다고 하겠으며 그 사이에 현상유지를 절대유리로 하는 불란서가 단연 영국에게 가담하여 이태리의 침략을 아프리카에서 제압(制阿)하되 그로 하여금 오싸덴 방면 혹은 아도와 방면 극소의 영토의 획득에 그치게 하여 에디오피아국의 독립과 영토를 대체로 보전하고 영제국의 때문에는 청(淸)나일강 방면의 권익의 절대 안전과 홍해 방면에서의 이태리의 과분한 균형의 확장을 단념케 하는 등으로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세계의 전란은 안심키 어렵게 될 것”이라고 대조한다.<sup>51)</sup>

그렇다면 안재홍은 정말 유럽열강 간 세계대전의 발발을 전망하였던 것일까? 이미 1934년을 기점으로 세계대전의 발발과 영·불·미·이(英佛米伊)의 보조적 역할을 언급하였지만, 그 전제는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이라는 극동정세의 변동 여부였기에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과 유럽의 세력균형 변화는 여전히 안재홍에게 종속변수일 뿐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유럽열강 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힘의 현실적 비교로 인해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안재홍은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경략을 둘러싼 유럽열강의 충돌가능성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여론을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결국 “이태리는 선진열강 중에는 후진신흥의 국가이라 그 침략의 갈끝(鋒芒)이 늦게 발화함이 있어 한갓 열국의 약감을 도발하게 되니 영불 열국의 묵은 과거에 비추어 냉안(冷眼)으로 보면 도리어 실책함을 금치 못할 것”<sup>52)</sup>이라는 안재홍의 평가는 국제질서의 중심부로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벽상관이 주변부로서 아프리카의 열강 간 충돌에 대한 냉안관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전쟁을 일으키는 국제정치의 기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안재홍의 냉안관은 열강 간 국가이익의 충돌이 제국주의적 침탈이라는 공통분모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태도의 반영인 셈이다.

만약 안재홍의 내부관심—조선의 독립과 해방이라는 과제—의 당위성이 역사의 일도성에 기초하는 것이고, 외부문제—중국 및 동아시아 질서—의 벽상관과 관련되어 있다면, 외부관심 대상으로서 유럽열강의 제국주의적 충돌에 대한 냉안관 역시 역사의 일도성이라는 안재홍의 역사관에 비롯한 것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안재홍은 각 열강의 근대 역사를 천착하면서 “일국민의 일민족에 대한 특수한 지배의 관계”라는 양상이야말로 사실상 상호

51) “歐洲戰雲의 冷眼觀” 『신조선』 12호(1935, 8-9).

52) “歐洲戰雲의 冷眼觀” 『신조선』 12호(1935, 9).

동화의 과정을 통해 더 이상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며 “인류는 동포이자 세계에 사는” 존재로서 “세계인류는 다 동포”라는 세계주의로의 방향을 역사의 추세로 단언한다.<sup>53)</sup> 그 결과 안재홍은 역사란 되풀이하는 동시에 역사단계에서 각기 독특한 일도성이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이로부터 “치자(治者)로서 임하는 자 이미 독특한 국민성이 있고 예속의 처지에 있는 자 또한 일정 독특한 역사와 민족성이 있는 것이니, 결국은 일반적인 대국에 비추어보고 그 상대자와의 조건에 따져보아서 무용한 독단으로 만일의 원인(禍因)을 다음 시기에 심어두지 아니함이 정치의 상수인 것”이라고 정언한다.<sup>54)</sup> 그것은 제국주의적 침탈을 경쟁하는 국가 간 관계에 대해서 안재홍이 취한 냉소적 태도가 바로 “목전에서 차차로 그 일정한 서막을 옮겨가고 있는 시국의 중대성과 및 그에서 편벽되어 수난하는 우리의 동포-동족을 볼 때에, 그들과의 사이에 심각한 친애(親愛)의 줄로 엮히는 것을 가장 존귀(尊貴)하다”<sup>55)</sup>는 인식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재홍의 벽상관과 냉안관은 어떻게 조선의 문제해결로 귀결되는 것일까? 그 단서는 세계주의를 가능케 하는 통합적 공동체의 창출과 그 기초로서 보편적 문화이다. 안재홍은 “현하 국제정세는 그의 세계적 연관성에 의하여 항상 상대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이미 일상식입니다. 그러나 또 각개의 나라에서 사정은 독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니 이것은 또 현대인 이유에서 간과할 수 없는 엄숙한 과학적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세계로부터 조선에 재귀하는 문화적 작업”이야말로 “몇 개의 모순적인 다각한 이념과 사체조차도 그의 행위으로써 통일 통합 및 회통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sup>56)</sup> 왜냐하면 “무릇 인의지사(仁人志士)의 뜨거운 피의 본능(血性)이, 불합리를 미워하는 날카로운 양심으로 뛰고, 중생을 도체라도 하려는 경건하고 진실(敬虔眞摯)한 바로잡겠다(匡救)는 염원에서 불타고, 강압을 물리치려는 번서는 기백에서 그 생명이 풀풀하게 움직이는 바에 기회(機)를 쫓고 경우(境)에 따라 제각각 만 형태로써 역사상에 나타나는 것”<sup>57)</sup>이기 때문이다.

안재홍의 벽상관과 냉안관은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추동하는 역사의 법칙성으로부터 일탈한 현상에 대한 지식인의 반응이고, 역사의 추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계를 포괄하는 호혜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세계질서의 구축을 위한 호혜성은 식민통치로부

53) “許久한 동무”(조선일보 1931/11/10), 『선집 I』(1981, 446).

54) “사회와 자연성”(조선일보 1935/10), 『선집 I』(1981, 539-540).

55) “許久한 동무”(조선일보 1931/11/10), 『선집 I』(1981, 448).

56) “민세필담 續-세계로부터 조선에”(조선일보 1935/06), 『선집 I』(1981, 509).

57) “천대되는 조선-東西諸家 誠忠一元論”(조선일보 1935-6), 『선집 I』(1981, 553).

터의 해방과 독립의 과제를 안고 있는 조선-일본이라는 개별국가의 지배-복종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며, 그 해법은 조선의 고유한 문화적 정화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고금동서 사심과 사욕을 떠났던 모든 형태(種種相)의 인의지사(仁人志士)를 끌어 모으는 진실한 일원론(誠忠一元論)”<sup>58)</sup>인 셈이다.

## V. 맺음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는 역사적 굴욕인 동시에 부당한 것이었다. 반대로 굴욕적이고 부당한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는 것은 자존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 따라서 항일투쟁은 부당한 제국주의 일본의 압제에 대한 민족적 자존감과 역사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런데 그 외연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 갖는다면, 그 내포의 밑바닥을 들여다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즉 해방과 독립을 위해 투쟁에 헌신한 정치주체들의 투쟁양상에만 치중할 경우, 그들이 식민당국으로부터 투쟁의 대가로 치뤄야 할 삶의 고단함과 내면의 갈등을 간과할 수 있다. 안재홍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안재홍의 항일투쟁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노선으로 규정하고, 학적 활동을 통해 민족적 자존의 정체성 확립에 전력하였다고 평가한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정당하지만 한편으로 그의 삶 저변에 놓인 고단함을 성화(聖化)함으로써 그의 공헌을 화석화(化石化)한다. 해외 망명정부의 투쟁이나 운동 역시 해방을 위한 지난한 활동이겠지만, 국내에서 식민통치기구에 직접 저항하고 그들의 압제에 직면하면서도 타협하지 않은 국내 민족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은 그 삶의 피로감이 비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국내에 머물며 해방과 독립이라는 과제에 몰두하였고 이를 위해서 민족의 정체성 연구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불가피성을 갖는다. 그것은 이후 국가건설 과정에서 그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져왔고 국제적 시야와 관점이 부족하다는 편견으로 작용한다.

과연 그런 것일까? 안재홍의 벽상관은 그 같은 시각이 편견에 불과하며, 오히려 민족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은 조선의 독립과 해방이 보편적 역사법칙상 당위적인 것이고, 개별 민족사의 추세로도 당위적인 것임을 논리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벽상관

58) “천대되는 조선-東西諸家 誠忠一元論”(조선일보 1935-6), 『선집 I』(1981, 554).

은 식민지의 지식인이 갖는 한계로 인해 국제질서의 재편과 전개과정을 국외자로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역사의 법칙성이 보편사와 개별민족사의 교차와 회통의 결과라는 점을 이미 숙지하고 국제질서와 식민지배를 그로부터 일탈된 부당한 현상으로 바라본 역사이해의 기제이다. 또한 국제정세에 대한 냉안관 역시 벽상관으로부터 출발한 안재홍의 대외인식 국면이 보다 확대되어 제시된 관점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즉 벽상관과 냉안관은 안재홍이 인지한 보편과 특수, 세계정세와 국내 식민정책의 상관성을 역사적 당위성으로 설명하기 위한 문제해결 기제였던 동시에 그 시점에 따라 양자의 연계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중국문제를 벽상관이라는 전통적 기제로,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에 따른 세계정세를 냉안관이라는 새로운 기제로 소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안재홍, 더 나아가서 민족주의 진영의 지식인들은 국제정세에 어둡고 무지했던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가 조선의 식민지배와 연계되어 있으며, 그 상황의 타개가 역사법칙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 역사의 귀결점은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위자—열강을 비롯한 국가들—가 역사의 정당한 궤도를 벗어난 질서의 재구축이라는 허망한 목표에 전력하고 있는 현실은 안재홍으로 하여금 그들 모두에 경멸과 냉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였던 것이다.

투고일 2013년 8월 9일

심사일 2013년 9월 4일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30일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史記』

안재홍. 1927. “社會民主主義의 程度에서 勞資協調의 政策下에 支配될 것.” 『신민』 24호.

\_\_\_\_\_. 1934. “危難中國의 壁上大觀.” 『신조선』 7호.

\_\_\_\_\_. 1935. “학생시대의 회고.” 『신동아』 6호.

\_\_\_\_\_. 1935. “國際時評.” 『신조선』 8호.

\_\_\_\_\_. 1935. “나와 교유록.” 『삼천리』 9호.



- \_\_\_\_\_. 1935. “歐州戰雲의 冷眼觀.” 『신조선』 12호.
- \_\_\_\_\_. 1949. 『한민족의 기본진로』. 서울: 조양사.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1981. 『민세안재홍선집 I』. 서울: 지식산업사.
- \_\_\_\_\_. 1983. 『민세안재홍선집 II』. 서울: 지식산업사.

## 2. 2차 자료

- 강광식. 1988. “서학의 충격과 전통적 정치문화상의 반응.” 『유교사상문화연구』 3집 1호, 77-108.
- 강재언. 1982. 『한국 근대사 연구』. 서울: 한밭출판사.
- 권형진. 2002. “고용창출 정책을 통한 나치의 경기 부양정책.” 『역사학보』 176호, 309-338.
- 김명규. 2002. “1920년대 부르주아 민족운동 좌파 계열의 민족운동론.” 『한국사학보』 12호, 171-201.
- 김민환. 1996. 『한국연론사』. 서울: 사회비평사.
- 김영신. 2004. “국민당 3全大會 전후의 反蔣운동.” 『중국학연구』 30집, 649-671.
- 김용욱. 1979. 『민족주의 민주주의: 한국민족주의의 전개와 향방』. 서울: 박영사.
- 김인식. 1998.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이념의 형성과정과 조선정치철학.” 『한국학보』 93집, 206-233.
- \_\_\_\_\_. 2000. “신민족주의의 정치사상적 검토-안재홍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3권 1호, 119-143.
- 김희곤. 1981. “동계사의 결성과 활동.” 『한국사연구』 48집, 167-189.
- 나현수. 2006. “당생지와 무한국민정부.” 『중국근현대사연구』 29집, 25-62.
- 노재봉. 1984. “외교와 Prudence.” 『세계정치』, 199-210.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박충석. 1982. 『한국정치사상사』. 서울: 삼영사.
- 반병률. 2006. “일제초기 독립운동노선논쟁-급진론과 완진론.” 『동양정치사상사』 5권 2호, 101-129.
- 배경한. 1994. “북벌시기 장개석과 반제문제-제남사건의 해결교섭 과정과 반일운동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부산사학』 25·6집, 259-308.
- \_\_\_\_\_. 2003. “중국망명시기(1910-1925) 박은식의 언론활동과 중국인식.” 『동방학지』 121집, 227-270.
- 백낙준. 1977. 『한국의 현실과 이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신복룡. 1987. 『한말 개화사상 연구』. 서울: 평민사.
- 신용하. 1974. 『독립협회의 자주민권 자강운동』. 한국문화연구소.

- \_\_\_\_\_. 1977. “주시경의 애국계몽사상.” 『한국사회학연구』 1권 1호, 13-58.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회.
- \_\_\_\_\_. 1981. 『독립협회 연구』. 서울: 일조각.
- 신일철. 1976. 『한국대표사상가』. 서울: 현암사.
- 오병수. 2002. “연구계 지식인과 북벌.” 『중국근현대사연구』 16집, 85-117.
- 유병용. 1982. “민세 안재홍의 인물과 사상-그의 民族獨立思想을 中心으로.” 『인문학연구』 16집, 121-140. 강원대학교.
- \_\_\_\_\_. 1994. “신민족주의론 연구.” 『강원사학』 10집, 101-119.
- 윤대식, 2005.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론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관.” 『한국사학보』 20호, 289-316.
- 윤사순. 1984. 『한국의 사상』. 부산: 열음사
- 이광린. 1973. 『개화당연구』. 서울: 일조각.
- 이만열. 1977. “단재 신채호의 고대사인식 시고.” 『한국사연구』 15집, 45-75. 한국사연구회.
- \_\_\_\_\_. 1983. 『한국근대역사학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 \_\_\_\_\_. 1985. 『박은식』. 서울: 한길사.
- 이상익. 2011. “안재홍 ‘다사리主義’의 사상적 토대와 이념적 성격.” 『한국철학논집』 31, 203-240.
- 이재명. 1992. “제1차 국공합작기 왕정위의 정치적 역할과 혁명전략의 변화.” 『사학지』 25, 97-140. 단국사학회.
- 이정식. 1976. “민세 안재홍의 『자서전』.” 『신동아』 11월.
- \_\_\_\_\_. 1984. 『한국민족주의의 운동사』. 서울: 한밭출판사.
- 이현희. 1979. 『한국근대사의 모색』. 서울: 이우출판사.
- \_\_\_\_\_. 1982.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서울: 집문당.
- 이황직. 2011. “초기 근대 유교 계열의 민족주의 서사에 대한 연구.” 『문화와 사회』 11권, 107-151.
- 임형진. 2004. “안재홍의 민족통일노선과 신민족주의.” 『정신문화연구』 27권 4호, 39-72.
- \_\_\_\_\_. 2006. “민세 안재홍의 국가건설사상-신민족주의론을 중심으로.” 오문환·이승현 외 공저. 『국가건설사상 III』. 서울: 인간사랑.
- 전재성. 2005. “라인홀드 니이버의 기독교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사상.” 『국제지역연구』 14권 4호, 1-32.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정영훈. 1992. “안재홍의 신민족주의이론.” 『정신문화연구』 15권 3호, 163-183.
- \_\_\_\_\_. 1994. “광복후 중도 민족세력의 정치사상.” 『한국의 정치와 경제-한국현대사의 주요 쟁점과 재조명』 5집.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2004. “통일지향 민족주의의 정치사상-해방 후 중도우파 세력의 통일국가 수립노선을

-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7권 4호, 3-37.
- 정운재. 1981. “안재홍의 정치사상연구: 그의 新民族主義論을 中心으로.” 『社會科學과 정책연구』 III-3, 167-19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_\_\_\_\_. 1990. “해방 직후 新民族主義 정치사상 연구 - 안재홍의 ‘민족투쟁론’과 ‘통일국가건설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7권 2호, 125-164.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_\_\_\_\_. 1991. “안재홍의 해방전후사 인식과 “조선정치철학적” 처방.” 김영국 外著, 『韓國政治思想史』, 서울: 박영사.
- \_\_\_\_\_. 1993. “한민족 이상국가와 ‘다사리민주주의론’.” 『국제관계연구』 6집, 101-125. 충북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 \_\_\_\_\_. 1997. “〈열린 나〉의 정치사상-최제우·안재홍·김지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7, 281-300.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_\_\_\_\_. 1999. 『다사리국가론-민세 안재홍의 사상과 행동』, 서울: 백산서당.
- \_\_\_\_\_. 2002. “안재홍의 조선정치철학과 다사리 이념.” 정운재 외 공저, 『민족에서 세계로 - 민세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론』, 서울: 봉명.
- 조동길. 1980. 『대중운동』, 민족문화협회.
- \_\_\_\_\_. 1982. 『의병들의 항쟁』,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채오병. 2012. “제국의 사이클과 지역 정치문화: 전간기 동아일보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와 역사』 94집, 173-216.
- 천관우. 1981. “解題.” 『民世安在鴻選集 1』, 서울: 지식산업사.
- 최종고. 1983. “구당 유길준.” 『사법행정』 24권 8호, 52-58.
- 최창규. 1972. 『근대한국정치사상사』, 서울: 일조각.
- 하영선. 2011. “제6강: 민세 안재홍의 실패한 20세기 복합론.” 『역사 속의 젊은 그들—18세기 북학파에서 21세기 복합파까지』, 서울: 을유문화사.
- 하정혜. 2004. “도덕교육에서 윤리와 자기이익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민윤리연구』 55호, 173-199.
- 홍이섭. 1974. 『한국사의 방법』, 서울: 탐구당.
- Chung, Yoon Jae . 1988. “A Medical Approach to Political Leadership: An Chae-Hong and A Healthy Korea 1945-1948.” *Dissertation for Ph. D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Hawaii, Manoa.
- Toynbee, A. J. 저. D. C. Somervell 편. 김규태 · 조종상 역. 2012. 『역사의 연구 I』, 파주: 디스타일.

ABSTRACT

---

*Ahn Jae-hong's Viewpoint, Observing the Situation on the Wall as a Political Prudence*

**Dae-shik Youn**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nalyzes an international viewpoint of colonial intelligentsia through Ahn *Jae-hong*, who was an uncompromising nationalist and an intelligent warrior. Why should we do it? On one side, Anti-Japanese activities through Ahn's arguments in his journals pointed out the real and moral injustices of Japanese domination, and focused on the historical inevitability crossing world history and Korean history on the other side. That was the only rational choice regarding the situation of colonial intelligentsia. Namely, it was *observing the situation on the wall* as a way of showing political prudence.

**Keywords:** *Ahn Jae-hong, Observing the situation on the wall*, political prudence, uncompromising nationalist, rational choice